

## 은행 (Positive)

### 7월 연체율: 기업 연체가 꺾이지 않는다

▶ Analyst 김도하 doha.kim@hanwha.com 3772-7479

국내은행의 7월 말 연체율은 0.63%(+11bp YoY)로 상승했습니다. 대출금리 상승이 보다 가파른 가계 차주에서는 연체율이 개선되었으나 기업 연체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중 연체율 하락 전환을 예상했으나, 기업 연체가 개선되지 못한 상태에서 높아지는 대출금리의 부담이 반영되는 시기가 도래한다면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 국내은행 7월 말 연체율 0.63%(+11bp YoY)로 상승

- 국내은행의 2026년 7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0.63%(+11bp YoY)로 상승 (그림 1~6)
- 차주별 연체율은 법인 중소기업이 1.00%(+10bp YoY), 자영업자가 0.77%(+5bp YoY)로 상승. 연중 상승폭이 한 자릿수로 축소되었던 법인 중기업 연체율은 재차 10bp대를 기록. 변동성 높은 대기업 연체율은 0.36%(+22bp YoY)로 상승
- 가계 연체율은 0.42%(-1bp YoY)로 YoY 하락을 5개월째 지속. 신용 등 일반대출은 0.84%로 2bp YoY 하락했고, 주택대출은 0.29%(flat YoY)로 연중 0.3% 내외를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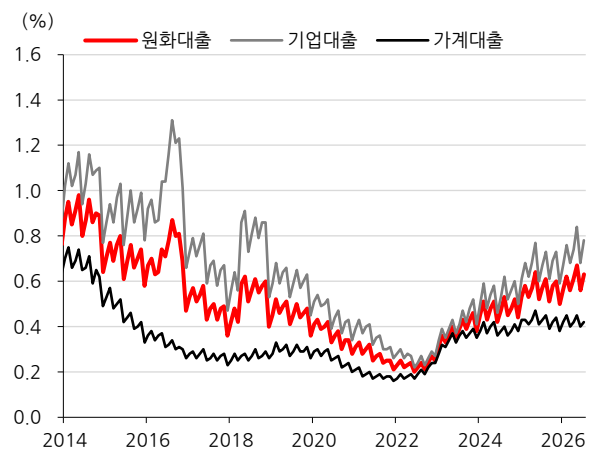
#### 기업 연체잔액의 증가

- 은행업종 연체채권 잔액은 7월 말 15.9조원(+16% YoY)으로 추산 (그림7)
- 7월 중 발생한 신규 연체는 3.2조원으로 19% MoM 증가 (그림9). 반면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규모는 1.4조원(-7% YoY)으로, 연체채권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리는 감소하면서 정리율은 최근 8개년의 7월 중 최저치를 나타냄. 신규 연체의 증가는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연체 정리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인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그림10)
- 기업 (추정): 7월 말 기업 연체잔액은 +23% YoY로 추산. 전월 대비로는 1.5조원 수준 증가했는데, 이 중 0.5조원이 대기업에서 나타나 적은 모수에서 거액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12)
- 가계 (추정): 7월 말 가계 연체잔액은 +0% YoY로 추산. 신용 연체잔액이 1% YoY 증가, 주택담보 연체잔액이 2% YoY 증가하면서 낮은 증가 속도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12)

#### 기업 연체가 꺾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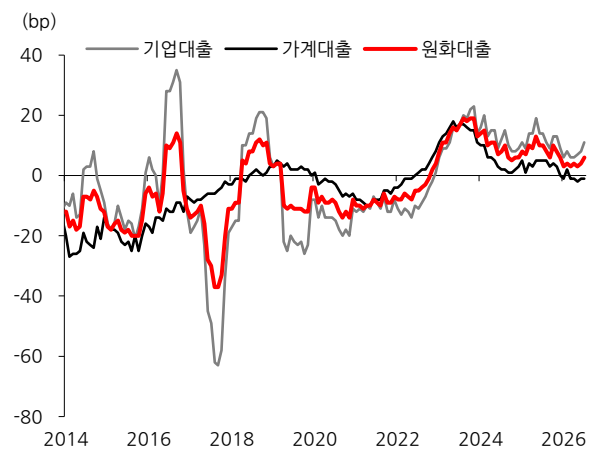
- 연초 이후 대출금리의 상승은 기업보다 가계가 가팔랐지만(신규 금리 YTD: 가계 +29bp, 기업 +4bp), 가계 연체율은 하락 반전한 반면 기업 연체는 꺾이지 않고 있음. 구심이 되는 법인 중소기업에서 연체율의 변동폭이 매우 완만하게 하락하는 수준에 그친 가운데, 대기업 연체가 건별로 더해지는 양상이라고 보임
- 당사는 은행업종의 연체율이 연중 전년 동기 대비 개선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업 연체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높아지는 대출금리의 부담이 반영되는 시기가 도래한다면 연체율의 하락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 연체율의 상승폭이 한 자릿수로 개선된 것은 사실인 바, 향후 은행업종의 연체율 추세는 법인 기업의 안정화 여부가 결정지를 것으로 판단

[그림1]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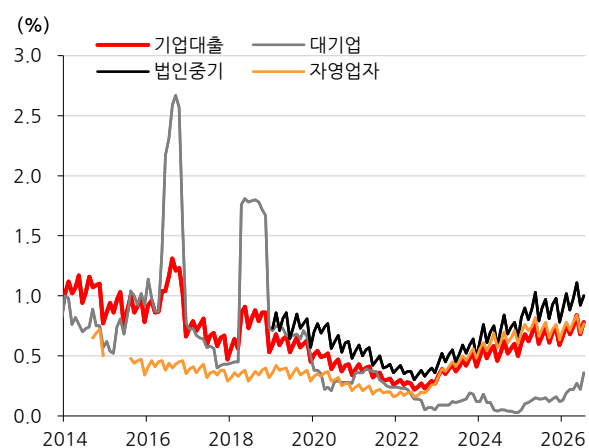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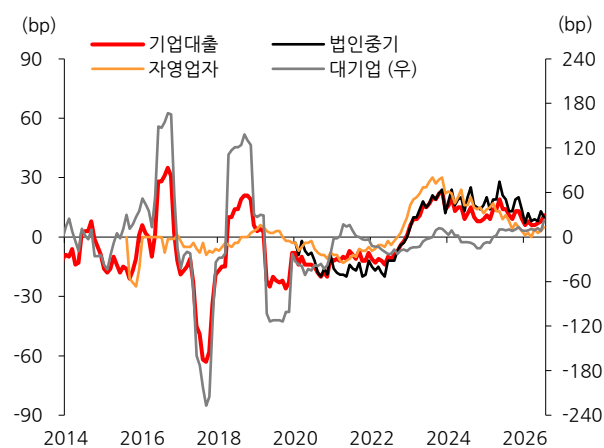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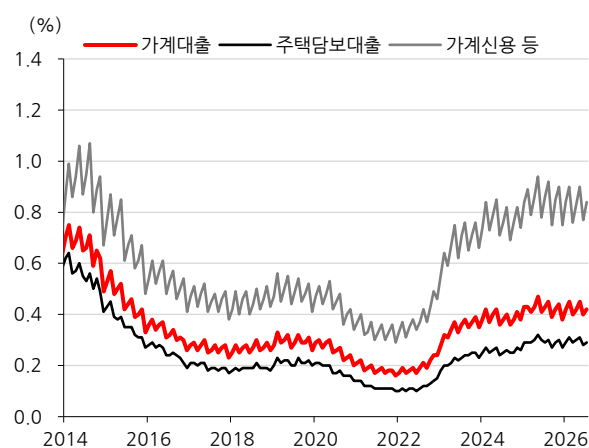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기업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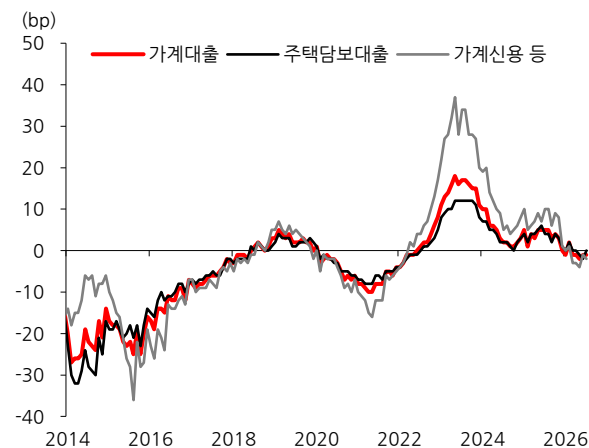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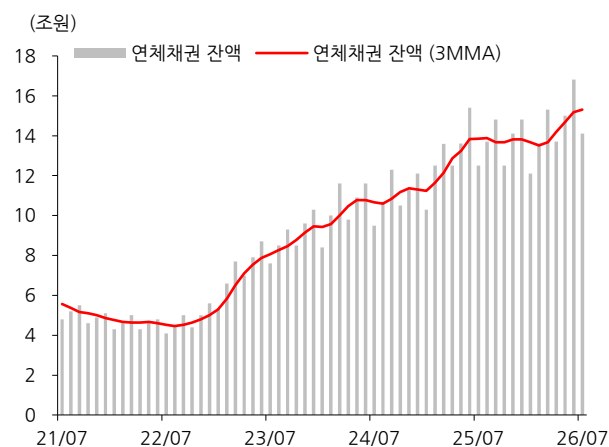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가계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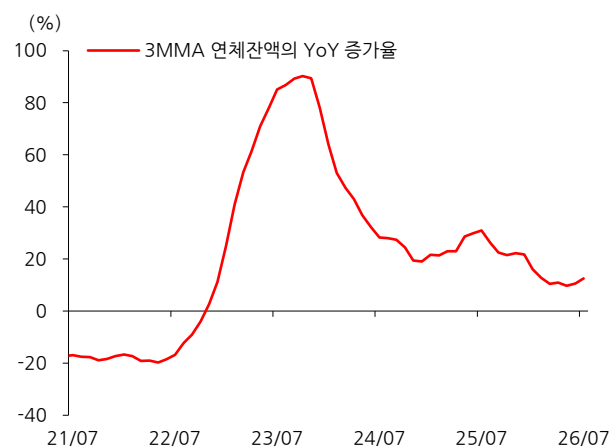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국내은행 연체채권 잔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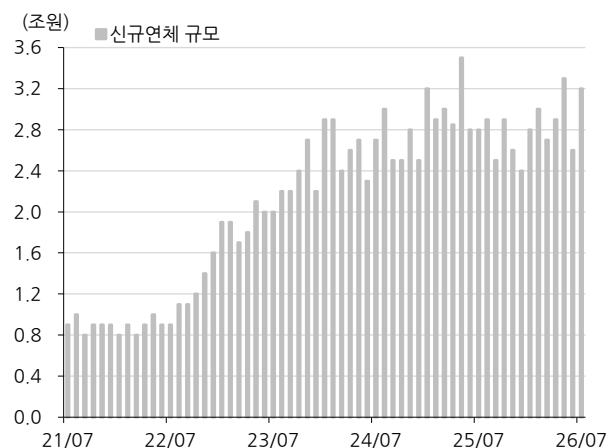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3개월 이동평균 연체채권 잔액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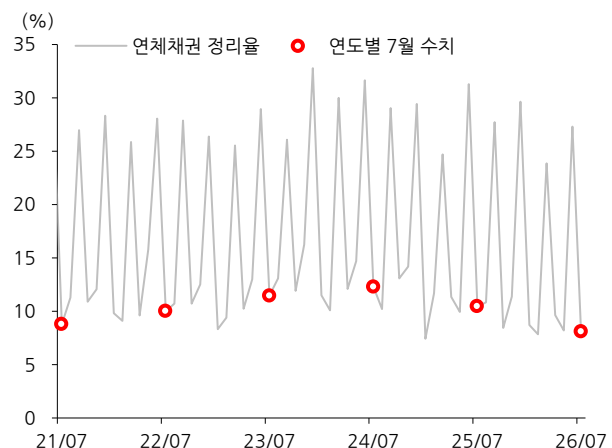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국내은행 월 중 신규 연체 규모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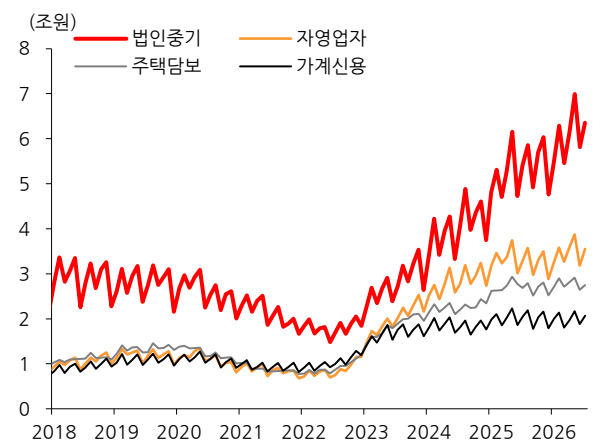
[그림10] 월 중 연체채권 정리율



주: 당월 정리 규모/(전월 연체잔액+당월 신규연체의 비율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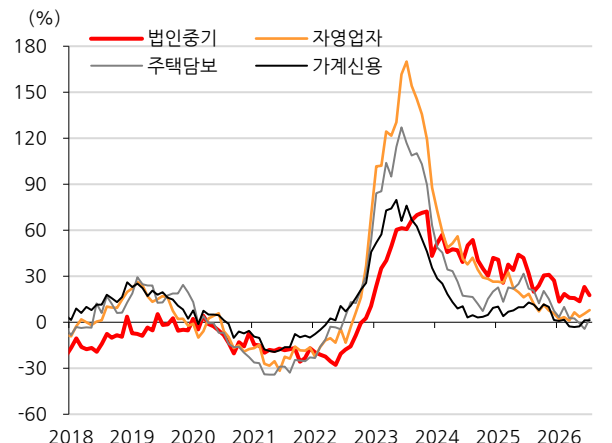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 규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의 YoY 증가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 Compliance Notice ]

(공표일: 2026년 9월 22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도하)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종목 투자등급 ]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 [ 산업 투자의견 ]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 [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

(기준일: 2026년 6월 30일)

| 등급         | 매수    | 중립   | 매도   | 합계     |
|------------|-------|------|------|--------|
|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 96.3% | 3.7% | 0.0% | 100.0% |